되살아난 8년전 '어린이 실종' 악몽…가슴 졸인 강진

얘들 밖에 내보내기가…

자녀에 휴대폰 사주고
부모가 등하굣길 챙겨
경찰은 순찰 대폭 강화

"아빠, 낯선 아저씨가 차에 타라고 했는데 안 탔어요."

최근 강진군 강진읍에 사는 공무원 A씨는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딸의 말을 듣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 2000년과 2001년에 강진읍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실종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한 뒤 들은 딸의 말이었기 때문이다.

A씨의 딸은 초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 2006년 학교 수업을 마친 뒤 강진읍내 한 슈퍼마켓 앞에서 30~40대로 보이는 남자로부터 차에 타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딸이 당시 '청바지를 입은 아저씨가 연두색 승용차에 타라고 했는데 안 탔다'고 하더라"면서 "왜 안 탔냐고 묻자, '친구랑 노는 게 더 재미있어서 안 탔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딸의 말에 놀란 A씨는 이날 딸과 함께 집 컴퓨터를 통해 아동 유괴에 대한 기사를 읽어주고, 낯선 사람에 대한 대처 요령 등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경기도 안양 유예슬·이혜진양 납치 살해 사건이 주변 이웃의 범행으로 밝혀지면서 지난 2000년과 2001년 1년 사이에 초등학교 여자 어린이 두 명이 실종된 강진군내 학부모들이 7, 8년 전의 악몽에 다시 시달리고 있다.

유치원·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방과 후 시간대에 맞춰 자녀 데려오기에 나서는가 하면, 아이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휴대폰을 구입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강진읍 소재 초등학교 주변도 아빠나 엄마의 손을 잡고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부쩍 늘어났다.

지난 2000년 6월 실종된 김성주(당시 6세)양이 다니던 강진동초교 2학년생을 둔 김모(여)씨는 "이번 안양 사건을 접하고 난 뒤 아이들을 혼자서 등하교 시키기가 겁이 난다"면서 "7, 8년 전 강진에서도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는 말을 듣고나선 가능하면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 6월 실종된 김하은(당시 7세)양이 다니던 강진중앙초교의 한 학부모도 "최근 집 밖에 있는 아이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휴대폰을 사줬다"면서 "이나마도 안심이 안돼 등하교를 직접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경찰은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등하교길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순찰차의 순찰 시간을 늘리는 등 안전한 통학길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강진경찰 관계자는 "강진에서 발생한 두 어린이 실종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순찰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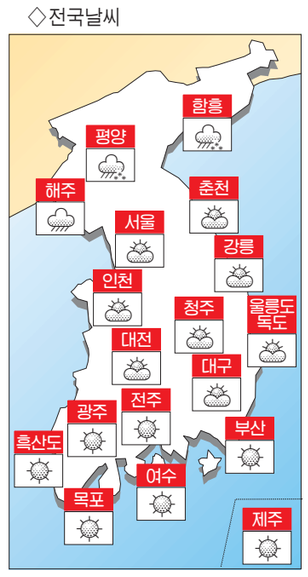
봄 햇살 가득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며 대체로 맑겠다.

3월 25일 (음 2월 18일)

◇전국날씨

광 주	구름 조금	3~14℃
목 포	구름 조금	4~12℃
여 수	구름 조금	6~13℃
완 도	구름 조금	4~13℃
구 례	구름 조금	0~15℃
해 남	구름 조금	0~13℃
장 흥	구름 조금	0~14℃
고 흥	구름 조금	2~14℃
순 천	구름 조금	0~15℃
영 광	구름 조금	0~11℃
진 도	구름 조금	2~13℃
전 주	구름 조금	2~13℃
남 원	구름 조금	-1~14℃
흑산도	구름 조금	5~12℃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 04:10 16:01 썰물 〈 09:18 21:19
여 수 밀물 〈 10:46 23:15 썰물 〈 04:47 16:42

▲해뜸 06:29 ▲해짐 18:48 ▲달뜸 22:20 ▲달짐 07:4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6(수)	27(목)	28(금)	29(토)	30(일)	31(월)
날 씨						
최저/최고	3/12	4/14	3/17	4/18	6/17	4/19

"안양 사건 부실 수사 부끄럽다"

담당경찰 고백 "정씨 혐의 3차례 포착하고도 종결"

"부실수사한 경찰을 하늘에서 혜진이.예슬이가 도왔습니다. 그 덕분에 사건이 해결된 것이었지요..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사건을 수사중인 경찰 관계자가 "실종사건 초기부터 피의자 정모(39)씨에 대한 혐의점을 포착했으나 정씨의 행적도 확인하지 않고 수사에서 배제했다. 경찰의 실수였다"며 사건 수사의 전말을 공개했다.

수사본부 직원이라고 자신을 밝힌 A씨는 24일 연합뉴스에 보내온 이메일을 통해 "수사초기 1차 탐문수사 당시 정씨가 5일 정도 집을 비운 것을 확인했고 부녀자를 성추행하려 했다는 제보도 있었다"며 "하지만 '실종당일 대리운전을 했다'는 정씨 말만 믿고 대리운전회사에는 확인도 안한 채 수사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2개월 뒤 군포·수원 부녀자 실종사건의 용의자 정씨가 안양8동에 살고 있다고 군포수사본부가 알려와 2차 수사를 했지만 이번에도 집안 수색과 혈흔반응을 실시해 증거가 나오지 않자 또 다시 수사를 접었다"고 말했다.

A씨는 "3차 수사에서 정씨 검거의 결정적 단서가 된 렌터카 관련 수사도 이미 2월초부터 착수했지만 한달동안 렌터카 대여목록만 뽑아놓고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연합뉴스

지하철 예술무대 개막

선보이고 있는 '실버 앙상블'.

광주도시철도공사는 24일 남광주역과 상무역에서 '2008 지하철 예술무대' 개막식을 갖고 문화예술 한마당 대장정을 시작했다. 남광주역에서 색소폰 연주를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5·6월 일시적 고온현상 온다

5월부터 때이른 일시적 고온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기상청은 24일 "오는 5월부터 우리나라에 남서기류가 유입되면서 고온현상이 일시적으로 생겨 더위가 찾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4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포근한 날이 많은 가운데 평균기온은 평년(7~14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시적인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으며 다소 건조한 날이 많아지면서 강수량은 평년(67~176㎜)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5월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기압골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은 평년(12~19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남서기류의 유입으로 일시적인 고온 현상을 보일 때가 있겠으며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다소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여름에 들어서는 6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확장하면서 남서기류의 유입으로 일시적인 고온현상을 보일 때가 있겠으며 기온은 평년(16~23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피의자 정씨 블로그 눈길

"아름다운 세상이 너무 슬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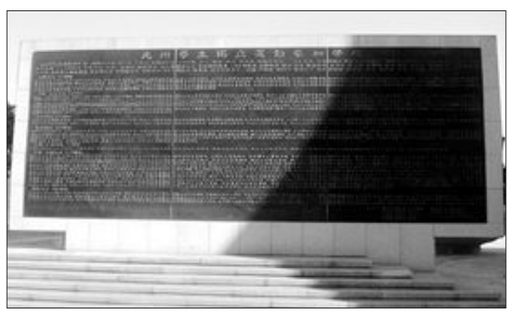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의 피의자 정모(39)씨가 자신의 블로그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의 심경을 토로한 블로그는 폐쇄적인 그의 내면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씨가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블로그를 만든 것은 2005년 7월. 그의 자백대로라면 군포에서 실종된 A모(당시 44세) 여인을 살해한 지 1년여 만에 블로그를 만든 것으로 이곳에는 일기형식의 글과 노래 가사, 사진 등 9건의 게시물이 등록돼 있다.

정씨는 블로그를 시작한 2005년 7월 31일 '조용히 일하며 살고 싶었는데. 이젠 그렇게 힘들진 않아. 그래도 또 다른 무거운 것이 날 짓누르고 있어'라며 자신의 심경을 글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글은 작년 성탄절, 두 초등생을 유괴, 살해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1월 쓴 것으로 '아픈 기억 속에 나를 가두지마요. 아름다운 이 세상이 너무 슬퍼져요'라는 가사의 대중 가요를 옮겨 놨다. /연합뉴스

광주학생운동 참가 320개 학교명 새겨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 조형물에 당시 운동에 참가했던 320개 학교 이름이 새겨졌다.

광주시는 최근 서구 화정동 중앙공원에 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 조형물 석관(가로 8.4m, 세로 3.9m) 2개에 320개 참가학교 이름과 학생독립운동 설명문을 새기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작업은 2004년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이 준공된 이후 광주시교육청과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등 관련 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광주에서 시작해 간도 지역까지 퍼진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족운동의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역사와 문화의 터전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유권자 밥값 지불 유선호 의원 조사

통합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유권자들과 식사를 함께 하고 밥값을 지불한 혐의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강진군선관위는 "유 의원이 지난 20일 강진군 한 식당에서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식대를 측근에게 지불하도록 한 혐의가 있어 조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진군내 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밥값은 유 의원과 함께 온 영암 모 교회 장로 A씨가 지불한 것으로 선관위는 파악하고 있다. 특히 A씨는 유 의원의 지역구인 장흥·영암지역에서 열린우리당 부운영위원장 등을 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

"총장 선거권 달라" 전남대생 90% 찬성

국립대 법인화는 85% 반대

전남대 총학생회는 지난 18일부터 4일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총장 선거권 부여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가자의 90.32%인 8천341명이 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투표 참가자는 전체 학생 1만8천458명의 50.31%인 9천235명이었으며 6.55%인 605명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84.74%인 7천826명이 반대했고, 11.89%인 1천98명이 찬성했다.

전남대 총학생회는 투표 결과를 토대로 25일 학생총회를 갖고 대학본부에 오는 5월 있을 제18대 총장 선거에 학생들에게도 선거권을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